

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은 우리나라 문학관 중 유일하게 유파의 이름을 딴 곳으로 단순한 문학관을 넘어 제1종 전문박물관이라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

맑은 서정 흐르는 '남도 언어의 저수지'

<3>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남도의 겨울은 푸근하다.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더욱이 올 겨울에는 유순한 산하에 소복이 쌓인 눈 풍경을 볼 수 없었다. 눈이 없는 겨울은 낯설지만 그러나 남도에서는 이마저도 살갑다.

강진으로 간다. 남도답사1번지라는 말이 이제에는 고전적인 수사가 돼 버린 지 오래다. 강진을 대표할 곳이 차고 남친다는 얘기다. 다산 초당, 청자도요지, 무위사, 가우도, 강진만, 백련사, 백운동원림 등... 보이는 곳이 명승이요 닿는 곳이 문화유적이라.

오늘은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에 뿔이 꽃했다. 문학관이든 기념관이든 명칭이 무에 대수겠는가 마는 기념관은 문학관을 넘어 박물관적인 성격까지 아우른다. 명칭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재한 의미와 포괄하고 있는 정신,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니겠는가.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은 살아 있는 '남도 언어의 산지'다. 아니 '남도 언어의 저수지'다. 맑고 시원한 시어들이 시문학파라는 유파를 매개로 탄생했다. 그들이 빛어낸 언어의 정찬은 눈부시다. 시문학파는 1930년대 남도의 방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말을 시로 형상화한 그룹이다.

이곳 기념관은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 9인의 시인을 기리는 문학공간이다. 이들은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문학을 표방했다. 그들이 펼쳐낸 언어의 결은 남도의 투명한 겨울 서정을 담았다.

이곳은 우리나라 여타 문학관 중 유일하게 유파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자 제1종 전문박물관이다. 2012년 3월 5일 개관한 이곳에는 전시실을 비롯, 자료실, 세미나실, 학예실, 소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바로 옆에는 김영랑 생가가 자리하고 있어 시인의 발자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8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시문학파기념관은 전국적인 문학관으로 발돋움했다. 운영, 자료, 행사, 구성 등 문학관 전반에 걸쳐 전국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오메 정하게 좋네!" 강진 시문학관을 둘러본 소감이다. "오메 정하게 좋구만." 눈치 빠른 독자라면, "오메 단풍 들것네"라는 말을 연상할 것 같다. 틀리지 않다.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 가장 친근한 시어를 꼽으려면 김영랑 시에 등장하는 '오메 단풍 들것네'를 빼놓을 수 없다.

곳곳은 남도의 분위기와 아울러 맑은 기운이 넘친다. 투명한 유리 천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절 하늘의 풍광을 담아낸다. 맑은 날은 맑은 대로, 바람이 부는 날은 부는 대로, 바람이 몰아치는 날은 몰아치는 날대로 운치가 넘친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일반의 문학관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인의 유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시인의 감성을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작나무를 오브제로 한 '시인의 전당'은 시적인 감성을 연출한다.

김선기 관장의 설명이다. 그는 오늘의 시문학파 기념관이 전국적인 문학관으로 발돋움하는데 산파를 담당주인공이다. 시문학파기념관을 개관하기까지 전국의 문학관을 탐방하고 벤치마킹했다.

기념관에서 눈에 띄는 공간은 '시인의 전당'이다. '숲속의 여왕'을 상징하는 자작나무는 은회색이 감돈다. 시베리아의 어느 눈 쌓인 산속을 떠올리게 한다. 현자의 분위기가 감돈다. 사색의 품이 넓어진 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문인의 심상이 깃들어 있다.

이곳에는 시문학파 시인들의 사진과 유품, 친필, 저서 등이 전시돼 있다. 오래된 자료들이다. 박제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현재와 소통하는 문인의 유산이다. 이 자료들만 꼼꼼히 훑어봐도 시문학파 문인들의 생애와 문학을 대략 가능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문학관 구성은 콘텐츠 다양화와 타자와의 소통에 역점을 뒀다. '20세기 시문학도서관' 코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유일본 '신문계' (1916)를 비롯 학술문예지 '여명' (1925), '여시' 창간호(1928), 최초 번역시집 김억의 '오년의 무도' (1923), '시문학' (1930), '문예월간' 중간호 (1932) 등 5000여권의 희귀본이 소장돼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한눈으로 보는 한국 현대시사' 도표다. 1919년 '창조'지가 창간된 해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문학의 주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시문학파의 이모저모'에서는 '시문학' 창간을 전후한 신문기사와 유파, 주요 시인들에 관한 자료가 정리돼 있다.

문학관을 나와 향하는 곳은 김영랑 생가다. 셋보

란 초가가 겨울 하늘과 보색을 이룬다. 왜 남도의 겨울이 포근한지 그 이유를 알겠다. 초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사로워진다. 초가는 전통이라기보다 실존의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그만큼 사실적이고 시작이다.

어디선가 "오-메 단풍 들것네"라고 노래했던 김영랑의 읊성이 들리는 듯하다. 잘 단장된 초가집 생가는 한편의 맑은 서정이다. 본체와 사랑채, 문간채로 구성된 기옥은 시골의 정취가 배어 있다.

금방이라도 이곳 어딘가에서 시인이 미소를 지으며 나올 것 같다. 김영랑은 1903년 1월 16일 강진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왜 지붕에 기와가 아닌 초가를 엮었을까. 일설에는 원래는 절터였고 명당자리였는데, 속설에 절터에 집을 지을 때는 무거운 기와를 엮으면 안 되었다 한다.

김영랑은 1915년 3월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휘문의숙에 진학했다. 희문의숙 재학시절, 기미독립운동(1919년 3월 1일)이 일어나자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넣고 강진에 내려왔다. 그리고 독립운동(강진4·4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대구형무소 등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청산학원에서 수학한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발하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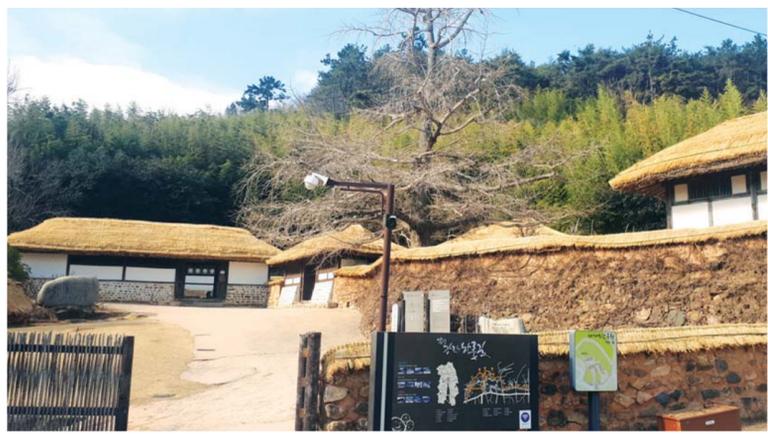
사랑채 앞에는 등나무와 은행나무가 에둘러 서 있다. 나뭇잎을 모두 벗어 버린 메마른 가지가 흑여 시인의 시혼처럼 느껴진다. 남도의 겨울, 이곳에서 영랑의 시를 읽다 어느새 헤가 저편다.

/글·사진=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랑·박용철·정지용·이하운 등 9명 시인 기리는 문학공간 유파 이름 딴 문학관 유일 제1종 전문박물관...2012년 개관 전시실·자료실·세미나실 등 갖춰 기념관 옆 김영랑 생가 시인 발자취 오롯이 느낄 수 있어



김영랑 생가 앞마당에 있는 조형물. 책을 읽고 있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정겹다.



시문학파 기념관 옆에 자리한 김영랑 생가.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